

세계 속의 한국 현대문학*

— 1990년대 이후 한독 문학교류 현황과 새로운 진로 —

정 해 영(한양대)

I. 머리말

한국문학은 수천 년에 걸쳐 단일 민족의 고유 언어로 발전해온 한국어를 매체로 성립되었다. 한국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인 한글의 창제는 한국문학의 형성에 획기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현대문학은 이와 같이 견고한 전통문화의 정신과 20세기 이후 급격히 보급된 서양문화의 영향을 수용하여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민족사의 수난기와 사회적 격동의 시대에서 소재의 보고를 찾아낸 현역 작가들의 성공작들은 당당히 세계문학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문학은 그 우수한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문단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기관과 민간 문화재단들이 수십 년 또는 수 년째 한국문학 해외홍보에 힘쓰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유럽에서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 홍보와 두 문화권 작가교류 행사에 일익을 담당해 온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문학 유럽 진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하나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주제를 다루는 방법은 일체의 이론적 접근을 배제하고 구체적 사례에 중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쓰여졌음.

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민간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온 한독작가교류 사업의 현황을 보고하고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번역문학 심포지엄 자료집이나 문예지에 실린 논의와 한국문학 해외 소개 행사와 작품 낭독회 등에서 직접 접하게 된 구체적 사실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적 정리 작업을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한국문학 세계화 작업을 기획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 바란다. 또한, 왜 한국의 독문학도들이 독일의 한국학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도 밝혀지기 바라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최근 한국문학의 서양어권 진출

II.1. 일반적 상황

한국어로 씌어진 문학작품의 서양어 번역은 1892년 홍종우가 프랑스어로 번안 출판한 춘향전 “향기로운 봄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한국문학의 서양어 번역출판은 11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양차대전, 한국전쟁과 군부독재라는 문화의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번역출판은 우연에 의존하여 지극히 간헐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에 이룩된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 산업에 관심을 가질만한 물질적 여유가 생겼던 1980년대 이후 2004년 현재까지 문예진흥원, 한국문학번역금고 등 정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한국문학 홍보 사업이 본격화되고 번역상 제정 등으로 고무되면서 서양어 번역출판 건수가 크게 늘었다. 1990

1) 박환덕: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번역」, 『문학마을』, 2004년 겨울호, S. 28ff. 참조.

년대에 특히 민간단체인 대산문화재단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그리고 번역 지원 전문 기관으로 신설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으로 약칭)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문학 해외 소개에 동참하면서 번역 출판 사업이 과거의 비슷한 기간에 비하여 양적으로 갑자기 팽창했음을 여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²⁾ 이에 따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번역의 수준과 출판 조건들도 질적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 글에서 1990년대부터 2004년 현재까지의 시기에 주목한 것은 이 기간에 한국 현대문학이 해외에서 최초로 영세성과 희귀성을 탈피하고 제대로 대열을 갖추어 현지의 문화계에 소개되고 일반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2002년도 번역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 1세기 남짓 동안 주요 서양어로 번역 소개된 한국 문학작품이 영어 312종, 프랑스어 141종, 독어 128종 등이다. 영어권은 지역과 사용 인구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관계도 가장 긴밀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번역 소개된 작품 수가 프랑스어 권이나 독일어권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300여종 밖에 되지 않는 이 번역서들이 거대한 영어권 출판문화 시장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1943년 UC Berkeley에서 한국어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 이래, 1970년대까지는 명맥만 유지해오다가 1980년대부터 한국어 수강생이 늘어났고, 1990년대부터는 한국어가 설강된 대학의 숫자가 무려 100곳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³⁾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경제력 신장과 외교 관계,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 비례하여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문학이 국제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영어권에서 지금까지의 부진을 극복하고 한국문학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04년 11월 일본 와세다 대학 방문 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어를 복수 전공 또는 선택

2) 이유식: 「한국 현대시의 영어권 번역, 출판 현황과 문제점」, 『시사문예』 2000년 5, 6월 호, S. 5ff/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1980-2002*. (hrq. v.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참조.

3) 김정년: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문학마을』 2004년 가을호, S. 25f. 참조.

과목으로 수강하는 현지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1,3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유럽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부진한 형편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프랑스어 권의 경우는 한국 문학의 진출 상황이 영어권보다 양호한 편이다. 중국, 일본, 한국과의 오랜 외교관계와 교류의 역사가 있고, 아프리카, 북미,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경영해온 프랑스의 문화시장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들도 외국문학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여건들이 한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른 학계보다 앞서서 한국문학 프랑스어 번역에 착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90년대부터 이문열, 이청준, 황석영, 김원일 등 대표적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되고, 신문 잡지의 문화란과 전문가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대산문화재단이 갈리마르 출판사 등으로 하여금 한국 문학 작품을 시리즈로 출판하도록 적극 지원했고, 비록 경제 외교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주한 프랑스 공관들도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다양한 노력이 결집해야 작품 몇 종을 유럽에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최근 프랑스어 권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수용에 관하여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므로 관계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독일어권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어려운 편이다. 함부르크 주립 도서관 순수문학 부문 책임자 베르너 여사가 1990년대 후반에 독일 문화 시장의 폐쇄성을 언급하면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⁴⁾ 매년 수만 권의 신간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 독일 출판시장에서 외국문학 번역작품 중 거의 90%가 영어권의 베스트셀러들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프랑스 문학작품도 5%를 넘지 못하며, 나머지 5%를 독일과 긴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유대를 맺고 있는 동구권, 중국, 일본 등이 나누고 있고, 한국은 아예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4) Erica Werner: Aus einem Bericht der Abteilung Schöne Literatur. Hamburger Öffentliche Bücherhallen. 1996.

구한말 이후 한국에서는 독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왔다. 먼 나라에 대한 관심은 한국전쟁 이후 문화계를 휩쓴 총체적인 심리적 공황 속에서 정점에 달했었다. 전쟁으로 인한 문화 정체성의 상실과 경제적 파탄에서 탈출해보려는 사회적 욕구 속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서양과 관련된 학문을 택하거나 졸업 후 외국 유학을 겨냥하여 전공 학과를 선택했다. 대학 입학 정원이 자율화되었던 1980년대 초 독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전국에 70여 개의 독문과가 개설되기에 이른다. 독일어권과의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배경의 이질성, 그리고 남한 인구의 규모에 비하여 이러한 현상은 이변에 속한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이 높았던 독일 문화와 문학에 대한 관심이 세계화 물결에 쓸려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축적된 정신 자산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영어권 중심의 교육 문화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학계가 고답적 학문 연구에 안주해 온 나머지 문화 향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닐까 자성해 본다. 늦었지만 활기차고 현장감 있는 상호 교류를 통해서 다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문학에 대한 독일에서의 인지도는 최근 4만세기에 걸친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필자가 독일어권의 한국문학 수용에 미력을 보태고자 한 것은 1970년대 전반기에 독일 현지에서의 개인적 체험 때문이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그때 이미 어두운 과거를 상당히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대열에 들어 있었다. 반면에 피해자인 한국은 세계인의 의식 속에 존재조차 없었다.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흔히 '한국의 국어는 중국어인가, 일본어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도 똑 같은 질문을 하는 이가 있음을 보았을 때, 한국의 고유한 언어와 한글, 그리고 세계 수준의 문학이 있다는 것을 독일에 알리는 일도 독문학도의 임무에 속한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독일어권을 잘 아는 고급 인력이 솔선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문화 및 문학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화에 기초한

쌍방 교류의 문을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독일어권 내의 한국학 강좌는 대개 전공 분야로 독립하지 못한 채, Bonn, Tübingen, Bochum, Frankfurt, München, Wien 대학의 일본학 또는 중국학 등 동아시아 연구소에 부설되어 있는데, 타계한 Bonn 대학의 구기성 교수 생존시의 활약을 제외하면 독일인 한국학자들의 업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10여 년간 갑자기 폭주하는 한국문학 소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 동독의 Humboldt 대학에 개설되었던 한국학과는 독일 통일 후 대학의 재편 과정에서 도태되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부족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독일어권 한국학도들에 비하면 한독 두 문화권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갖추어 문화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의 독문학도들이 과도기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한국학을 집중 지원하여 현지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II.2. 한독 작가교류 현황과 성과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독일어권 진출은 작가들의 직접 교류라는 새로운 노선을 찾아 나서게 된다. 당시까지 한국문학에 관심이 없던 해외 출판 시장에서 체계 없는 번역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출판된 책들은 대부분 곧 잊혀지고 말았다. 심지어는 해당 언어권에서 출판사를 찾지 못하여 번역 출판을 지원해 준 기관에 납본용으로 국내에서 인쇄한 다음 나머지 부수는 창고에 사장된 예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문화 사업은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엄격한 예산 집행의 규칙에 따라 실적 위주로 추진되므로 외관상 하자가 없다. 그러나 아무도 피드백의 책임을 지지 않는 맹점이 있어 실제로는 해외진출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곁도는 일이 많았다. 1980년대 말까지 영세했던 한국문학 독역 출판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2년부터 추진된 한독 작가교류는, 현지문화계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서 번역 출판된 작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지 문단과 독자의 주의를 환기

하는 것이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독일 문단을 관찰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독일에는 중세 음유시인의 전통이 아직도 맥맥히 살아 있다 이것이 미국이나 프랑스 출판시장과 독일 시장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새 소설이나 시집이 나올 때 출판사의 홍보담당자는 지면을 통한 광고와 함께 작가의 낭독 여행을 계획한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이 발달된 독일은 대도시가 아니라도 전국에 문학의 집이나 도서관, 문예서점들이 있어서 크고 작은 문학작품 낭독회를 개최한다. 여기 초청된 작가들은 자신의 신간 서적이나 출판 예정 작품 원고의 일부를 육성으로 낭독한 다음 청중과 대화를 나누고 책의 서명 판매도 한다. 아직도 많은 독일인들이 저녁식사 후의 여가를 유흥으로 탕진하지 않고 음악회에 가듯 당연하게 입장료를 내고 문학 작품 낭독회에 모인다. 한국의 서점에서 가끔 베스트셀러의 서명 판매를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진지한 문화 행사다. 각 주 정부나 시청 문화부에 문학 담당관이 있어서 이러한 문학 행사를 지원하고, 민간 문학 전문기관도 많아서 일년 내내 전국적으로 문학 작품 낭독회가 열린다. 한국 문학작품의 독일어권 진출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독일 문단과 서적 시장의 유통 구조 속으로 진입해야 한다. 작품이 번역되어 독일에서 출판된 사실에 만족한 나머지 손을 놓아 버리면 그 작품은 서적 폐품이 되어 버리기 쉽다. 한국과 독일의 중견 작가들이 직접 만나고 상대국의 청중을 모아 작품을 낭독하고 그 반향이 청중의 개인적 공감을 넘어서 넓은 독자층과 지역사회의 문화 네트워크에 연쇄적 파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학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린 것도 그 때문이다.

1991년 이른 봄, 독일인 동료들의 자문을 얻어 베를린 문학 교류회 Literarisches Colloquium Berlin (이하 LCB로 약칭)를 찾아갔다. 베를린 문학 교류회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반제 Wannsee 호숫가에 넓찍한 정원을 갖춘 저택에 자리잡고 있는데, 행사장과 사무실 외에 초청 작가들과 번역가들을 위한 숙소와 주방, 휴바 등을 갖추고 있다. Günther Grass가 이 부엌에서

작가들을 위하여 요리를 하는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규모와 시설은 입지 조건에 따라 각양 각색이지만 독일어권 문학의 집들은 대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문학 인구의 애호를 받는 것 같다 LCB는 우리 독문학도 들에게도 잘 알려진 시인이자 비평가이며 TU Berlin의 독문학 교수인 Walter Höllerer가 냉전시대에 문학을 통해 동서간의 장벽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창설했고, 현재까지 동유럽과의 교류에 행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분단국 한국의 현대 문학을 소개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협약이 잘 진행되어 1992년 여름 한독 문학교류사상 최대 규모인 11명의 한국 작가단이 LCB에서 1주일간 머물면서 ‘한국 문학의 주간’을 개최하게 되었다 문예진흥원과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그리고 1993년부터는 주독독일문화원의 재정지원과 협력을 함께 얻은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당시 독일문화원장인 오토 박사 Dr. Manfred Ott는 일반적인 독일 문화의 보급이나 한국 사회에 대한 교화가 아닌 쌍방의 대화를 통해서만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측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국제교류에서 인적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후 짝수 해에는 한국 작가단이, 그리고 홀수 해에는 독일어권 작가단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낭독회를 열고, 양국 작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문화체험을 쌓는 행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좋은 반응이 독일 문화계에 널리 퍼져 1995년부터는 격년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독일어권의 여러 도시에 한국 작가단이 파견될 수 있었다. 정례 행사 이외의 초청은 대산문화재단과 문예진흥원, 그리고 번역원이 경비를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김주영, 김원일, 이청준, 홍성원, 조세희, 전상국, 한수산, 오정희, 현길연, 임철우, 이인성, 신경숙, 조정란), 시인(황동규, 정현종, 오규원, 이시영, 조정권, 황지우, 김형영, 김광규, 김혜순, 나희덕), 비평가(유종호,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오생근, 조남현, 성민엽, 홍정선)들이 독일어권의 주요 도시 베를린, 본,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빌레펠트, 뮌헨,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찌히, 쾰리히, 바젤 등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선양하는 행사를 전개해 왔다. 한국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면 독일어권 작가나 배우들

이 그 독일어 번역문을 낭독한 뒤 청중과 대화를 나누었다. 현지 언론 방송 매체와 인터뷰도 하고 문화 유산을 둘러보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한국의 문화예술 팀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늦게 독일어권을 찾은 한국 작가단에 대한 현지의 반향은 초창기부터 매우 호의적이었다. 많은 청중이 찾아와서 주최측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작품집의 서명 판매도 독일어권 작가의 평균치를 상회했다. 현지 교민들에게도 조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었다고 자부한다.

독일 작가단의 한국방문행사도 같은 모델에 따라 진행되었다. 1993년 가을에 시인 Harald Hartung, Durs Grünbein, Karl Riha, 소설가 Hans Joachim Schädlich, Klaus Schlesinger, 비평가 Norbert Miller, Ulrich Janetzki가 서울과 부산에서 작품 낭독회와 강연회를 열고 경주의 문화 유적을 돌아보았다. 한독수교 백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어권의 문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역 중견 또는 신예 작가로 구성된 작가단이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고 한국 독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회였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들의 고전을 주로 읽던 한국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뒤이어 한 해 터울로 시인 Joachim Sartorius, Ursula Krechel, Uwe Kolbe, Michael Augustin, Tobias Burghardt, Silke Scheuermann, 음유시인 Stephan Krawczyk, 소설가 Burkhardt Spinnen, Marcel Beyer, Hans-Ulrich Treichel, Friederike Kretzen, Liane Dirks Perikles Monioudis, Matthias Polyticki, Ingo Schulze, Rudolf Bussmann, Martin Mosebach, Bernd Schroeder, 비평가 Hubert Winkels 등이 내한하여 낭독회와 강연회를 가졌다. 이 작가들의 작품은 미리 번역하여 각각 낭독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동서문학’ 가을호와 봄호, ‘현대시학’ 2003년 5월호 등에 게재되었다.

이 행사의 또 한가지 특징은 중전에 주로 한국측 예산을 가지고 나가 일방적으로 한국 문학을 홍보하고 돌아오던 방식을 지양하고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항공료의 대부분은 각각 본국에서, 체재비와 강연료는 원칙적으로 초청국이 부담하되, 한국 작가단의 구성과 일정상 상대방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체 부담하였다. 통산하면

문학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한국측이 결국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되지만, 철저한 준비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대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후진들에게도 권유하고 싶다. 국민 세금과 소비자의 부담을 아껴 쓴다는 것 외에, 상대방 주최측에게 행사 자체에 대한 책임감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II.3. 가시적 성과와 파급 효과

작품 낭독 행사의 반향이 현지에서 좋았다고 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현지에서 색다른 행사이기 때문에 일시적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것이 일회성 소모적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적물을 남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작품이 설혹 뛰어나다 해도 그 언어권에서 문학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 독자들이 그것을 읽고, 그곳의 신문이나 잡지, 방송매체 등에서 보도와 서평이 나오고, 출판계에서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수요가 뒤따르게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문학이 외국의 문학 유통구조 속으로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물들을 종합해 볼 때 1980년대 말까지 정부가 주도한 한국문학 해외홍보 사업은 사후 관리에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늦게나마 번역원이 출범하여 전문적, 체계적으로 번역 지원을 관리하고 통계 자료의 발간과 심포지엄 개최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관료성을 탈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종합적 안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권별로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한독 작가교류의 가시적 성과는 여러 출판물의 형태로 남아 있다. LCB에서 열린 ‘한국작가 낭독의 밤’은 베를린의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 *Tagesspiegel*’을 비롯한 독일 언론매체의 호의적 반응을 얻고, 문학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1992년 이 행사에서 한국 작가들이 발표한 작품들은 LCB에서 발행하는 문학계간지 ‘과학기술 시대의 언어 *Sprache im technischen*

*Zeitalter*⁵⁾ 1993년 6월호와 1995년 3월호에 한국문학 특집으로 수록되어, 한국 현대문학이 독일어권의 주요 문학 전문지에 소개된 효시가 되었다 1994년 본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다음해 본 대학 한국학 연구소의 구기성 교수가 발간하는 한국문화잡지 ‘한’에 특집으로 수록되었다.⁶⁾

1990년대에 이처럼 한국 현대 문학의 독일어권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독일 학술교류처 파견 연세대 객원교수 브레젤 박사 Dr. Sylvia Bräsel는 1993년 서울에서 열린 독일 문학의 주간 행사를 참관하고 작가 교류의 중요성을 깨달은 듯하다. 그래서 한국 측 공동 편집자를 구하여 문예진흥원의 지원을 얻고 1996년에 창간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예비평 계간지 ‘디 호렌 *die horen*’ 겨울호⁷⁾를 한국문학 특집호로 출간하는 일을 성사시켰다 호렌 지의 편집 원칙에 따라 한국 문단의 다양한 면모를 대표하는 20여 명의 현역 소설가, 시인, 평론가의 작품이 이 특집호에 실렸다 고은, 오규원, 황동규, 황지우, 김지하, 정현중, 신경림, 이시영, 김혜순, 조정권, 김광규의 시, 이청준, 홍성원, 김주영, 현길연, 임철우, 오정희, 김원일, 이문구, 이문열, 조세희의 소설, 이강백의 희곡, 전숙희, 김병익, 권영민, 조남현의 에세이가 독일 소개되었다 작품이 수록된 작가 중 거의 전원이 1945년 이후 한국어로 국어 교육을 받은 이른바 한글세대라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수록된 작품들의 운문을 그 동안 한독 작가교류 행사에 초대되었던 독일 작가들이 맡아주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이로써 한국의 동시대 문학은 1980년대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독일 문단에 튼튼한 교두보를 세우고 그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빌레펠트의 펜드라곤 출판사Pendragon Verlag에서는 1998년부터 ‘한국 현대작가선 *edition moderne koreanische autoren*⁸⁾’을 출판하여 그 시리즈가 2004년 현

5) *Sprache im technischen Zeitalter*. (hrsg. v. Walter Höllerer u.a.) LCB 1993 u. 1995.

6) Hanbiol K. S. Kuh (Hrg.): *한 Korea Heft 17*. Sonderheft: *Autorenlesungen in Bonn u. Berlin*. Bonn 1995.

7) *die horen*. (hrsg. v. Johann Peter Tammen) Nr. 184. *Zeitgenössische Literatur aus Korea*. (zusammengestellt von Sylvia Bräsel, Miy-He Kim u. He-Yong Chong) Bremerhaven 1996.

재 이미 25권 넘게 발간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소설가 Rudolf Bussmann이 공동 발행인으로 있는 스위스 문학 계간지 '드레퓌르트 *drehpunkt*'⁸⁾가 김주영, 현길언, 김원우, 서하진의 소설과 송수권, 김광규, 황지우, 나희덕의 시를 번역 소개하는 한국문학 특집을 펴냈다. 특히 '드레퓌르트'의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을 계기로 문예진흥원과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그리고 스위스 프로헬베치아 재단이 공동 지원하는 스위스 최초의 한국 작가단 낭독회가 쥐리히, 바젤, 고트리벤에서 열린 것은 그 동안 독일에 국한되었던 작가 교류행사가 독일어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특집은 2002년 한국 작가단이 스위스의 독일어권인 쥐리히와 불어권 도시 로잔에서 각각 독일어와 불어로 낭독회를 열어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한국작가 낭독회가 이곳 저곳에서 열리고 한국문학 특집이 발간됨에 따라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간 독일어권의 주요 언론매체에서 드물게 밖에 볼 수 없었던 반가운 현상이 나타났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하 FAZ로 약칭), 'Süddeutsche Zeitung'(이하 SZ로 약칭), 'Die Welt', 'Tagesspiegel', 'Neue Zürcher Zeitung'(이하 NZZ로 약칭)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신문의 문화란에 한국 현대 문학 관련 기사가 거의 전면으로 크게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기사들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한국작가 낭독회 개최와 관련된 보도나 인터뷰 기사,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서평, 또는 문예란의 시 칼럼 등이다. 기사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한국 문화에 대한 무지를 시인하고 그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인다. 특히 한국 작가 낭독회나 책을 통해서 접한 작품의 내용을 거의 한국 내 전문가의 수준으로 꿰뚫고 있어서 한국 문학 독일어권 수용의 전망을 낙관하게 한다 개인의 스크립에서 발췌한 다음의 예들

8) Heyong Chong u. Günther Butkus(Hrg.): *edition moderne koreanische autoren*. Bielefeld seit 1998.

9) R. Bussmann u. M. Zingg(Hrg.): *drehpunkt*. Nr. 106. *Im Land der Morgenstille. Lyrik und Prosa aus Südkorea*. (zusammengestellt v. Heyong Chong) Basel 2000.

은 이러한 한국 문학 관련 기사의 사소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한국인들 *역주]이 축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그사이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1234년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 독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Fußball können sie, das weiß mittlerweile die ganze Welt. Aber daß die Koreaner schon 1234, also 200 Jahre vor Gutenberg, bewegliche Lettern erfunden haben, ist zumindest hierzulande weitgehend unbekannt.¹⁰⁾

이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차와 컴퓨터와 하계 올림픽, 아시아 위기와 민주주의의 고충을 생각합니다 남한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문학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코리아, 적어도 개방적인 남반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문학을 최소한 윤곽이라도 소개하고자 한 이번 호의 시도가 그 증거입니다.

Wenn das Land genannt wird, (...) denken wir an Autos und Computer und Olympische Sommerspiele, und Asienkrise und Mühen mit Demokratie. An Literatur denken wir wohl kaum, wenn von Südkorea die Rede ist. (...) Aber das Interesse an Korea, vor allem dessen südlichem, offenen Teil, nimmt zu. Davon zeugt auch die vorliegende Nummer, die den Versuch unternimmt, eine uns noch weitgehend unbekannte Literatur wenigstens in Umrissen vorzustellen.¹¹⁾

(...) 서구에서 한국은 예술과 문화의 국가로서는 아직도 새로이 찾아내야 한다 최근 남한 작가단이 쥐리히에서 발표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한국문학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Als Kunst- und Kulturation ist Korea im Westen immer noch zu entdecken. (...) Gelegenheit zu einem vertiefenden Gespräch über die koreanische Literatur ergab sich kürzlich, als eine Gruppe südkoreanischer Intellektueller in Zürich auftrat.¹²⁾

10) Claudia Schülke: *Asiens Dichter und Denker. Koreanische Schriftsteller im Frankfurter Literaturhaus*. In: FAZ., 30. Okt. 2002. S. 54.

11) R. Bussmann u. M. Zingg: *Liebe Leserin, lieber Leser*. In: drehpunkt. a.a.O. S. 2.

12) Hoo Nam Seelmann: *Aufbrechende Muster*. In: NZZ, 22/23 Juli 2000. S. 50.

(…) 1941년 서울 출생, 그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온갖 변혁으로 인하여 삶의 근본이 뿌리째 뒤흔들린 수많은 민족들 속의 개인이 모두 그렇듯이, 그도 대항할 수 없는 거대 세력들의 경기용 공이 된 셈이다. 그의 유년기는 한국전쟁의 그늘로 뒤덮였고, 젊은 날은 독재와 쿠데타의 파장에 좌우되었다.

(…) 1941 geboren, ist ein Grenzgänger zwischen Kulturen und, wie die Menschen so vieler Völker, die von den Umbrüchen des 20. Jahrhunderts entwurzelt worden sind, ein Spielball nicht zu beeinflussender Kräfte. Seine Kindheit wurde vom Koreakrieg überschattet, seine Jugend von Diktatur und Militärputsch mitbestimmt.¹³⁾

한독 작가 교류의 성과를 반영하는 역대 독일어권 신문 잡지기사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포괄적인 예는 NZZ의 2003년 기획기사이다.¹⁴⁾ 이 기사는 최근 10여 년간 독역 출판된 작품과 작가들을 광범위하게 소개하면서 한국 현대 문학의 배경과 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발간 실적이 가장 많은 Pendragon 출판사의 한국 현대작가선을 중심으로 이문열, 김원일, 안정효, 김병익, 오정희, 김혜순, 김광규, 이청준, 김주영, 최인훈, 이호철에 주목하고 있다. Pendragon의 한국 작가 시리즈는 필자와 합의한 내용과는 달리 출판사의 재정 형편상 단시간 내에 문예진흥원과 대산재단, 번역원의 지원을 받은 작품들을 여러 경로로 입수하여 물량 위주의 출판을 감행함으로써 번역의 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독일어권 출판계의 열악한 한국 문학 출판 사정을 모르는 한국 내 일각에서는 재정 지원을 왜 명망없는 군소 출판사에 낭비하느냐는 무책임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Pendragon 출판사가 영, 불어권을 망라하여 한국문학 해외 홍보사업의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한국 현대 문학의 독일어권 수용에 자료를 제공하여 중요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빈 손으로 한국문학을 수용해 달라고 조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Pendragon은 10여년 째 매년

13) Hans-Jürgen Heise: *Straßzettel für meine Nostalgie*. In: *Tagesspiegel*. 16. April 2000.

14) Ludger Lüdkehaus: *Dissonanzen im Land der Morgenstille*. In: *NZZ*. 20. 09. 2003.

Leipzig와 Frankfurt의 도서전에 한국 문학 시리즈를 가지고 참가하고 신간 서적의 작가 낭독회를 주선했다. 독일어권 내에서 출판 실적이 미미했던 한국 출판계가 한국을 2005년도 Frankfurt 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되게 한 배경에는 정기적인 Frankfurt 도서전 참가와 서울 국제 도서전 개최 등 한국 출판 협회의 다년간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Pendragon이 한국 문학 시리즈를 앞세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 몫을 담당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Pendragon의 시리즈가 없었다면 앞서 언급한 NZZ의 기획 기사의 규모도 훨씬 줄었을 것이다. 우리가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어권 출판계에서 문화란의 기사가 독자와 문단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번역 출판의 전문 기관인 번역원이 해외 주요 언어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서평과 낭독회, 강연회에 대한 보도 등 한국 문학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할 때다.

III. 한국문학 세계화의 문제점과 전망

III.1. 작품 선정의 문제

문학의 전파와 수용은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우선 우리 문학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선정하여 번역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런데 번역 대상 작품의 선택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번역 지원 대상 작품의 선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번역자가 작품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가 원작의 작품성과 번역의 질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정부 지원 방식과, 일정한 심의 기구가 미리 번역 소개될 가치가 있는 작가의 범위를 정해 주고, 심사위원회는 번역의 질만을 심사하는 대안 재단의 방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번역 지원 결과물들을 검토하면 두 가지 방법이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작품자체가 지니고 있는 절대적 가치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하여 수용자는 '문학적 전개과정의 일부로서 창작물의 작품 성격의 구성에 동참'¹⁵⁾한다. 바꿔 말하자면 외국어로 번역된 작품의 객관적 가치는 그 번역이 출판되어 보급되는 현지의 수용과정에서 결정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부지원 기관과 민간재단들이 외국어 번역과 출판을 지원하는 대상은 주로 독자들과 평단의 검증을 거쳐 인정된 '현대의 고전' 작품들이다. 한국문단에 내재하는 이러한 검증과정은 그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한국학자와 번역가들은 흔히 이러한 1차적 선별 과정에 반발한다. 영문학자이며 번역가인 안선재 교수는 주목의 대상을 '자신들만의 잣대로 정해 버리는'¹⁶⁾ 평단의 관행이 해외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한국작가의 발굴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로스 킹 Ross King 교수는 이러한 판단기준을 '원어민에 의한 독재'¹⁷⁾로 경계하고 있다. 한 작품에 대한 반응이 나라에 따라, 독자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국에서 일방적인 작품 선정을 해서 번역의 자유와 즐거움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번역 작품의 선택을 번역자에게 맡기라고 충고하고 있다. 번역자가 그 작품에 깊이 빠지지 않고서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또한 번역 작품의 수용은 전적으로 해당 언어권의 시장과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 해도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 해줄 긍정적인 예만을 들고 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번역 대상작품 선정을 번역 지

15) Thomas Metscher: *Ästhetische Erkenntnis und realistische Kunst*. In: *Das Argument*, Berlin 1975. S. 252.

16) An Sonjae(Brother Anthony): 「한국문학 번역의 현실」, 『펜과 문학』 42호, 서울 1997.

17) Ross King: 「한영문학작품 번역은 학습될 수 있는가?」 번역원 주최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움 강연, 서울 2002.

원자에게 맡긴다면 지원자의 문화 감각과 감수성, 언어구사 능력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또 번역출판의 결과를 해당 언어권의 출판시장에만 맡긴다면, 문학의 상업성과 문학 작품의 가치 기준에 대한 쟁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번역 출판된 작품 목록을 보면 과연 이 작품이 한국측 지원으로 출판될 가치와 필연성이 있었는지 묻게 되는 예가 쉽게 눈에 띈다. 번역가들의 개인적 기호가 과연 한국평단의 포괄적인 안목과 장기간에 걸친 검증과정에 우선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역자 개인이 선호하는 작품이 현지의 독자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면 재정지원 없이 해당 언어권의 출판사 부담으로 책을 내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면 될 일이다.

III.2. 번역 · 출판의 문제

위와 같은 의문점들은 번역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가장 큰 딜레마는 번역이다. 문학 번역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역자의 수는 절대 부족하고 최근 2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는 거의 기계 번역의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¹⁸⁾ 번역은 원칙적으로 외국어에서 모국어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번역은 실용텍스트나 전문텍스트 Sachtext의 번역과 다르다. 문학 텍스트의 한마디 한마디에 작가의 예술혼이 스며있다면, 번역문에는 원작의 창조성을 되살리는 역자의 철저한 장인 정신이 담겨있어야 한다. 종합예술이라는 문학작품을 훌륭하게 번역하려면 목표언어 Zielsprache가 모국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한 정보 전달로서의 번역이 아닌 문학 텍스트의 번역은 번역된 작품이 해당 언어권에서도 문학 텍스트로서 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¹⁹⁾이다. 모국어로 창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구사력과 문학적 감수성, 그리고 두 언어권

18) 문학 번역의 입장에서 본 기계 번역의 활용 불가능성에 관하여는 최운영: 「기계 번역과 문학 번역」, 『번역연구』 제4집, 1996, S. 56ff. 참조.

19) 박환덕: a.a.O. S. 43.

의 삶과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없이는 원어민이라도 문학 작품을 제대로 옮길 수 없다.

현실적으로 모든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번역자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 점에서도 외국인 한국학자와 국내의 견해가 엇갈린다. 외국인들은 현재 한국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팀을 이룬 '팀 체제 번역'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긍정적인 예들도 드물지 않다. 안선재 교수의 한국시 번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영어를 모국어로 문학을 전공하고 수십년간 한국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는 동안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심취한 나머지 한국인으로 귀화한 귀한 인재이다. 이미 서정주, 구상, 고은, 김광규의 시집을 비롯하여 한국시 선집 등을 영어권에서 출판한 그의 영역은 한국 시에 담긴 정서와 상징과 비유를 깊이 이해하고 유려한 영어의 문학 텍스트로 옮겼다는 평판이 있다. 예를 들면 늙은 홀어머니의 죽음을 훌가분해 하는 어느 중년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세태를 풍자한 시 '효자동 친구'를 동네 이름의 반어적 의미까지 살려 'A good son'으로 번역했다.²⁰⁾ 'A friend in Hyoja-dong' 따위로 직역했다면 원제가 함축하고 있는 풍자를 전혀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성공적인 번역들은 통계상 예외에 속하는 편이다 인적 자원의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해독하는 외국인 번역자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역의 가능성은 흔히 문화적 배경에 대한 무지나 두 문화권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할 능력의 부재에 있다. 유년기부터 미국에서 성장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영어로 교육을 받은 한국계 젊은이에게 안중근 기념 사업의 문화 행사 통역을 시켰더니 '안중근 의사'를 'doctor 안' 즉 'medical docter'의 의미로 옮겨 죄중을 아연케 했다. 독일인과 결혼하여 수십년간 독일에 거주한 한 역자는 '초가 삼간'을 'Dreizimmer-Wohnung'으로 옮겼다. 한국에서 가난을 상징하는 세 칸짜리 집이 유럽 중류

20) Kim Kwang-Kyu: *Faint Shadows of Love*. (translated by Brother Anthony) London 1991. S. 92.

의 가정집으로 바뀌어 실상이 왜곡된 것이다. 표현방법이나 이미지의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Jetzt kann nichts mehr passieren.'이라는 독일어 표현은 '이제 다 됐어./ 만반의 준비가 됐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직역 한다면 본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어색한 표현이 될 것이다. 문학 작품의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정'과 같은 추상어와 함께 동식물의 이름이다. 추상어를 이해하는 동서양의 감성 파장이 전혀 다르고, 동식물의 상징적 의미도 판이할 뿐 아니라, 서식하는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시에 자주 나오는 소쩍새는 독일에 없는 새이다. '소쩍새 울음'을 궁여지책으로 'Kuckkucksruf'라고 옮긴다면 원문의 서정성은 다 사라지고 소란스런 삐꾸기 울음 소리만 남게 된다.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다는 까치는 독일어로 'Elster'인데 인가에서 먹이를 훔치는 '도둑새 Raubvögel'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한 줄 옮길 때마다 부딪치는 번역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개 한국인이 초역을 하고 외국인의 교열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외국인 교열자가 흔하지 않다. 지금까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능한 한국인 번역자가 초역을 맡고, 외국인 작가가 그 원고의 운문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초역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번역 성공의 열쇠이다. 1992년 이후 작가 교류에서 독일어로 옮기는데 도입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방법이 한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번역 지원보다 번역가 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보다는 해외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인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 다행히 문화부와 대산재단이 제정한 번역상 등의 지원책이 해외의 번역가와 교민 2세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다.

III.3. 독일어권, 영어권의 전망

작품의 번역 소개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이 작가의 상호교환 행사이다. 작가

낭독회가 문단의 큰 주류를 형성하는 독일어권의 경우는 특히 우리 작가들이 현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청중에게 직접 자기 작품을 읽어주고, 독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 곳의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등 자신의 작품 수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사를 방문하고, 문화체험을 나누는 것 역시 번역 작품의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과 문화의 선양에 큰 기여를 한다. 답례의 형식으로 외국의 작가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도 외국문학의 소개 차원을 넘어서 우리 문화의 간접적 전파에 큰 역할을 한다. 외국 작가들의 한국방문은 그 사실 자체가 작가의 경력사항으로 출판물들에 기록되어 한국의 이름을 널리 오래 알리게 된다. 우리나라에 다녀간 독일어권의 작가들은 연령층은 서로 다르지만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이들의 말과 글을 통하여 극동의 분단국가가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지닌 동방의 촛불로 부각된 성과는 기대보다 크다. 정부 지원과 함께 파라다이스 문화재단과 대산 재단의 한독 문학교류 행사는 번역 출판된 작품의 사후 관리와 한국 작가 소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 결과가 앞서 언급한 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2005년 Frankfurt 도서전 주빈국 초청을 계기로 독일 문화계에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한국문학 독일어권 진출의 성패가 달려 있다.

영어권은 다소 사정이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문학 행사를 하고 돌아온 한국 작가나 문화계 인사들은 종종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학, 특히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현재까지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된 영역 출판물이 미국의 문단이나 거대한 출판계에 진출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표면적인 관찰이기를 바라면서 재미 동포 사회의 문화적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건다.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른바 교민 15세대와 2세대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익힌다면 이상적인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고 한국 문화 홍보대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어권에서 한국문학 행사가 열리면 한독 부부와 자녀들이 아시아에 관심 있는 현지인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온다. 쾰리히에서는 이제 대학생이 된 입양아들이 여러 명 찾아와 아버지의 부재를 주제로 한 현길언 소설 ‘귀향²¹⁾’을 독일어로 읽고 주인공의 처지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재미 동포와 2세 들에게도 문학 작품 수용의 기본이 되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본다.

2004년 5월 San Francisco 한국 문학인 협회의 문학 캠프와, UC Berkeley의 한국학 센터, 그리고 California 국제 문화 대학에서 유럽에서의 한국 문학 홍보 활동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미국에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기회가 있었다. 문학 캠프에는 한국어와 문학을 사랑하는 재미동포 1세가 80여 명이나 모여 이틀에 걸쳐 한국에서 초청한 문인들의 강연을 듣고, 자신들의 작품을 낭독하고, 소 그룹을 만들어 습작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를 가졌다. 모두가 생업이 따로 있는 아마추어였지만 한국에서 등단의 순서를 거친 문인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문학에 대한 진지성과 열기가 국내의 어떤 문학 캠프보다 높아서 놀라웠다. Berkeley 대학의 한국학은 규모가 적은 대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문학 캠프와 Berkeley 대학에 강사로 초빙된 권영민 교수는 하버드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기 위하여 뉴욕에 체류 중이었는데 그곳에서도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해주었다. 거주 국제문화대학은 성인 교육 기관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문학특강의 참가자도 많고 열의도 대단했다. 이들 교민 사회가 한국문학 미국 진출에 매개자 Kulturmittler 가 되려면 우선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문화계에 편입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이어서 결속력이 강한 것이 이민 사회가 현지 문화 생활에 동화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된다.²²⁾ 성인 교육을 포함한 미국 내 한국학의 경우 당당하게 미국 대학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는 강의를 한국어와 영어로 나누

21) Hyun Kil Un: *Heimkehr* (übersetzt von Hoo Nam Seelmann) In: *drehpunkt. aaO.* S. 13ff.

22) 류선모: 「한국계 미국 문학의 정체성과 그 문제점」, 2002 문학과 번역 심포지엄. *aaO.* S. 100ff. 참조.

어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현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학 행사도 2개국어로 진행하여 폐쇄성을 벗어나야 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역시 언어의 장벽과 인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문학 홍보사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권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 시장인 미국에서 독자를 확보하는 일이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대열에 서게 하는데 시급한 과제이다.

IV. 맺음말

이제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타하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한국문화 홍보를 도모할 때이다.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곳에서만 한국 문학의 독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의 자유로운 본성으로 보아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문화계에 내재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체계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지원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제한된 전문 인력과 예산으로 양적인 실적 위주의 지원을 계속한다면 지난 수십 년간 '조리로 물주기 원칙 Giesskannenprinzip'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언어를 매체로 하는 문학의 교류는 기술이나 상품 수출, 스포츠 등과는 달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문학 작품이란 그것이 씌어 지고, 발표되어 읽히고, 평가받고 수용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외국어로 번역 소개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한 두 해의 행사로 성급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21세기에야 비로소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해외 소개사업이 각계의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수십 년에 걸친 관민의 집중적 노력의 결과가 최근

주요 언어권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이 2005년 Frankfurt 국제 도서전 주빈국으로 초청된 것을 계기로 한국 문학 해외 소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번역 출판을 지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지 출판인들이 찾아와 한국 문학 작품의 저작권을 사는 새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기관과 민간의 지원금이 번역 출판의 양과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해외에서의 출판 조건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금만을 탐하는 일부 외국 출판사들의 안이한 자세를 유발하고 번역 작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내

- 김경년: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문학마을』 2004년 가을호.
 류선모: 「한국계 미국문학의 정체성과 문제점」, 번역원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움. 서울 2002.
 박환덕: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번역」, 『문학마을』 2004년 겨울호.
 안선재: 「한국문학 번역의 현실」, 『펜과 문학』 42호, 서울 1997.
 이유식: 「한국 현대시의 영어권 번역. 출판 현황과 문제점」, 『시사문예』 2000년 5, 6월호.
 최윤영: 「기계 번역과 문학 번역」, 『번역 연구』 제4집, 서울 1996.
 Ross King: 「한영 문학작품 번역은 학습될 수 있는가?」 번역원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움, 서울 2002.

국외

- Rudolf Bussmann u. Martin Zingg(Hrg.): drehpunkt 106. Basel 2000.
 Heyong Chong u. Günther Butkus(Hrg.): edition moderner koreanischer autoren. Bielefeld. seit 1998.

- Hans-Jürgen Heise: Strafzettel für meine Nostalgie. In: Tagesspiegel. 16. April 2000.
- Walter Höllerer(Hrg.): Sprache im technischen Zeitalter. LCB 1993 u. 1995.
- Kwang-Kyu Kim: Faint Shadows of Love. Translated by Brother Anthony. London 1991.
- Hanbiol K. S. Kuh(Hrg.): 한 Korea. Heft 17. Bonn 1995.
- Ludger Lüdkehaus: Dissonanzen im Land der Morgenstille. In: NZZ. 20. September 2003.
- Thomas Metscher: Ästhetische Erkenntnis und realistische Kunst. In: Das Argument. Berlin 1975.
- Claudia Schülke: Asiens Denker und Dichter. Koreanischer Schriftsteller im Frankfurter Literaturhaus. In: FAZ. 30. Okt. 2002.
- Hoo Nam Seelmann: Aufbrechende Muster. In: NZZ. 22/23 Juli 2000.
- Johann P. Tammen(Hrg.): die horen. Nr. 184. Bremerhaven 1996. 4. Quartal.
- Erica Werner: Aus einem Bericht der Abteilung Schöne Literatur. Hamburger öffentliche Bücherhallen. 1996.

<Zusammenfassung>

Koreanische Literatur als Weltliteratur

— Koreanisch-deutscher Schriftstelleraustausch seit 1990 und
Zukunftsvisionen —

Heyong Chong (Hanyang University)

Die vorliegende Arbeit setzt sich die Aufgabe, am Beispiel des Schriftstelleraustausches zwischen Korea und dem deutschsprachigen Raum seit 1990 den aktuellen Stand der Rezeption moderner koreanischer Literatur durch Übersetzungen in für Korea relevante westliche Sprachen zu ermitteln und damit neue Möglichkeiten zu erkunden. Da sich die Untersuchung auf unmittelbaren Erfahrungen gründet, wurden übersetzungs- und rezeptionstheoretische Aspekte nicht berücksichtigt.

Eingangs stellt die Arbeit eine allgemeine Situation von übersetzten Werken aus der koreanischen Literatur im englisch-, französisch- und deutschsprachigen Raum dar. Daran schließt ein Bericht über die Erfahrungen aus dem Koreanisch-deutschen Schriftstelleraustausch, der seit etwa 13 Jahren durch öffentliche Institutionen in beiden Sprachräumen gefördert wurde, und dessen Wirkungen in zahlreichen Veröffentlichungen aus den letzten Jahren sichtbar wurden. Dabei stellte sich heraus, dass diese Initiative auf die Rezeption moderner koreanischer Literatur im deutschsprachigen Raum positiv und beschleunigend wirkte und das Interesse an Korea weitgehend verstärkte.

Im zweiten Teil wurde versucht, die Problematik bei der Vorstellung koreanischer Literatur als Weltliteratur aufzudecken, um neue Aussichten zu entdecken. Dabei wurden die jüngsten Diskussionen über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setzung und der Rezeption im jeweiligen

Sprachraum in Betracht gezogen.

Aus diesen Betrachtungen kommt man zur Einsicht, dass das Interesse an koreanischer Sprache und Literatur in den letzten Jahren erheblich zugenommen hat. Korea als Gastland der Frankfurter Buchmesse 2005 sollte der Literatur des Landes eine Chance bieten, sich auch ohne Förderung in die Weltliteratur integriert zu werden.

주제어: 한국문학, 세계화, 한독 작가교류

Schlüsselbegriffe: Koreanische Literatur als Weltliteratur, Koreanisch-deutscher Schriftstelleraustausch

필자 E-Mail: bovanokim@korea.com (정혜영)

투고일: 2004. 10. 30, 심사일: 2004. 11. 10, 심사완료일: 2004. 11. 28.